

치 사

유서 깊은 수륙도량 진관사가 임진년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륙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주, 무주고혼을 위로하는 중요한 전통 불교의례이자, 고려때부터 천여 년 동안 전승되어 온 거대한 규모의 재회(齋會)입니다.

특히 진관사 수륙재는 조선 건국과 함께 왕실 주도로 거행하였던 국가적 의식이었습니다. 태조는 진관사에 국행수륙사(國行水陸社)를 설치하고(1397), 매년 정기적으로 수륙재를 설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태종 18년 3월에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하여 수륙재를 설행했으며, 연산군이 성종의 칠칠재를 수륙재로 설행하도록 하는 등, 진관사는 민족과 함께한 국가적 수륙도량로서의 전통을 계승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진관사 수륙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의미 있는 불교 의례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아끼고 지켜 나아가야 할 문화적 자산인 것입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무관심과 전승의 소홀로 사라져가는 가운데, 600년의 전통을 지닌 무형문화유산으로 진관사 수륙재가 지니는 가치는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륙재가 전통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일 사찰에서 거대한 규모의 불교의례를 600여 년의 전통으로 보전해 왔다는 것은 그 사례가 드문 일입니다. 이는 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스님과 신도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륙재를 온전히 계승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있는 존재와 생명 없는 존재까지도 위로하고 축원하였던 국행수륙대재의 정신이 앞으로도 도면면히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10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